

은둔제국의 황제 청송 주산지(注山池) 왕버들

왕버들 이야기

네팔 지도에서 티벳 쪽으로 튀어 나온 부분이 무스탕 왕국이다. 현재 25대 왕(Raja)인 지그메 팡발 비스타가 통치하는 네팔 내 자치왕국이다. 인구 1만 5000~2만 5000명의 산악지역 소국(小國)이다. 1830년대에 아마 팔(Ama Pal)에 의해 세워졌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자 무스탕 정부는 네팔 정부에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네팔의 영토가 되었다.

한적한 시간, 주산지는 은둔 왕국 무스탕 같다. 야생화가 다소곳한 공녀들처럼 손 모아 머리 숙이고 있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수국(水國), 주산지가 나온다. 물의 나라엔 왕정을 고수하고 있는 왕국의 왕들 같은, 어린 황제를 옹위하는 고명대신들 같은 왕버들이 늘어서 있다. 고졸하고 장엄한 모습에 걸음이 조심스럽다. 아이들마저 뽀박질을 멈추고 잠시 소승불교 수도승이 된다.

주산지는 경북 청송 주왕산에 있는 산중호수다.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이 인공 저수지는 조선 경종 원년(1720년) 8월에 쌓기 시작하여 이듬 해 10월에 완공했다.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7~8m이다. 주왕산 계곡물이 모여들어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아래 마을 이진리에 사는 해마다 호수 주변을 정리하고 동제를 지낸다.

주산지 풍광의 백미는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30여 그루 왕버들이다. 갠지스강에 몸을 담그고 수행 중인 힌두교도 같은 왕버들이 물속에서 참선 중이다. 더러는 부러지고 고사목 되어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있다. 뿌리인지 줄기인지 알 수 없는 나무동치는 물과 물을 분별하지 않는다. 짙은 시절의 풍모를 잃지 않고 온전해 보이는 몇 그루도 한결 같이 묵연수행 중이다.

버들은 물을 좋아하는 나무여서 물속에서도 잘 자란다. 물속이 그저 장엄하다. 150년 동안 허리춤까지 물에 담근 채 살고 있다. 시인, 묵객, 사진가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하다. 주왕산이 위치한 경북 청송은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찾아가기가 수월하다. 청송에는 교도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산지 왕버들 -반 칠 환

누군들 짓지 않은 생이 있으리라는 150년 동안 무릎 밑이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피안은 바로 몇 걸음 밖에서 손짓하는데 나는 평생을 건너도 내 슬픔을 다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은 왜 나타나 하여금 평생 마른 사막을 견도록 하시고, 저로 하여금 물의 감옥에 들게 하신 걸까요 젊은 날, 분노는 나의 우뚝지를 썩게 했고 슬픔은 발가락이 문드러지게 했지만, 이제 겨우 사막과 물이 둘이 아님을 압니다



버드나무과 큰키나무 왕버들 습지 · 냇가서 20m까지 자라 한국 원산지나 일본에도 서식

이곳에도 봄이 오면 나는 꽃을 피우고 물새들이 내 어깨에 날아와 앉습니다 이제 피안을 지적에 두고도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슬픔이 나의 꽃인 걸 어렵듯이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산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다. 주위는 주왕산 영봉에서 뻗어 나온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움을 더한다.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진작가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주산지의 절정은 해 뜨기 전 저수지 한 가운데 우뚝 선 수중 왕버들 수심 그루가 물안개와 어우러진 모습이다. 특히 주변이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새벽 풍경은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들인다. 이미 많은 이들이 다녀갔지만 이곳에는 언제나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따라서 가을에 주산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서둘러야 한다. 새벽 1~2시쯤 도착해도 삼각대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왕버들은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큰키나무이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일본, 대만, 중국에도 서식한다. 키는 10~20m까지 크며 주로 습지나 냇가에서 자란다. 주왕산 주산지와 함평 자연생태공원 호수에 서식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물 속에서도 썩지 않고 살 수 있다. 줄기가 굵고 몸집이 커서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거나 긴 타원 모양이며 새로 돋을 때 붉은 빛이 돈다. 암수 단 그루이고, 4월에 잎과 함께 꽃이 핀다. 잎겨드랑이에 기다란 꽃이삭이 달리는데 비스듬히 위를 향한다.

잠시나마 왕버들 곁에 서서 물의 나라 신화가 되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한다. 왕버들은 물과 물을 분별하지 않는다. 얼음 어는 겨울에도 그대로 물속에 몸을 담고 있다. 방안에 앉아서의 맑이 공급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삶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주산지의 절정은 해 뜨기 전 저수지 한가운데 왕버들과 물안개가 어우러진 모습이다.

사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십시오!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입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